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 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 발행일 2013년 3월 15일 | 총권 29호 | 주소 서울 마포구 성신동 256-13 2층 | 전화 02-77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1@hanmail.net | 편집 학도넷 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음악이 들릴까?

소희야 곧 봄이 오겠구나.

우리 학교에 봄이 오면 좋지. 그레 덕치초등학교는 영원한 '우리 학교' 지. 너희들을 떠난 후 어느 날 학교에 가 보았더니, 살구나무가 없어졌더구나. 다산 거지. 서운 했지만, 어찌겠니. 내가 평생 보고 산 나무다. 살구꽃이 피면 나는 늘 그 나무 아래에서 놀았단다. 살구꽃잎이 내리는 꽃 잎 속에 앉아 글을 썼지. 살구나무는 내 지붕이었고, 내 책상이었고, 내 연필, 내 공책이었던단다. 소희야 할머니는, 언니는 어떻게 지내시느냐. 궁금하구나.

현아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계시느냐. 네가 처음 전화 온 날을 난 기억한다. 다리가 아픈 너를 업고 점심을 먹으러 다녔지. 네 얼굴을 보는 순간 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나는 놀랐단다. 가슴이 무너졌지. 소희, 성민이 그리고 네가 연 사흘걸이로 내 반에 전학을 왔었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기가 막혀 쓰러질 것 같아 한 시간 공부를 하고 집으로 택시를 타고 와서 무너졌단다. 누워버렸지. 나는 너를 아주 좋아 했단다. 네가 처음 쓴 글 바스락 소리/뿔까? 는 내 삶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았단다. 세상을 향해 처음 귀를 번쩍 뜨던 사랑의 소리를 너는 잡아냈지. 승진아, 지금도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구나. 도화지에 코를 박고 그림을 그리던 기억이 새롭다. 어머니는 언니는 잘 있고, 아버지는 지금도 그림을 그리러 다니시느냐. 승진아 네 옆에 앉아 네가 그리는 그림을 바라보며 나는 행복했단다. 두환아, 새로 얻은 세 번째 동생은 잘 크느냐. 큰 형인 네가 동생들을 잘 돌보는 너른 마음을 나는 좋아 했지. 형 다움이 생겨나는 너는 착했지 잘 웃었잖아 잘 운 사람은 착한 사람이란단다. 동생의 취아 소리를 비오는 소리로 생각한 네 글을 보며 우리 웃었지. 강산아, 지금은 어느 공사장에 있는지? 네 머리통을 보며 나는 강호동을 생각하며 웃곤 했다. 어찌면 그렇게 강호동을 닮았는지, 성민아 할머니, 아버지는 잘 계시지. 어느 날 할머니를 만났더니, 성민이가 요즘은 집에 와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놀랐단다. 자연을 보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마을과 산과 들과 곡식을 보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너희들을 돕고 싶었던단다. 날아가는 새를 보면, 내리는 눈을 보면 어찌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니? 생각은 세상을 바꾸고 가꾸는 힘이지. 채환아 머리통이 돌 같던 채환아, 어느 날 머리로 유리창을 받아 썼지. 참 내, 유리창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머리로 받아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제 너였다. 잘 생긴 민성아, 어느 날 너의 집 앞을 지나는데, 네가 나를 보고 달려와 나를 크게 안았지. 그 때 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던 네 모습과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네 어머니가 생각나는구나. 연희야, 아버지는 지금도 포크

레이를 가지고 일 다니시느냐. 언젠가 밥집에서 보았다. 순하고 예쁜 연희야, 나는 네 아버지와 고모들과 작은 아버지들을 가르쳤지. 얼굴들이 다 동그란 모양인데, 너만 가름한 얼굴이었지. 희진아, 머리를 깎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원 선생님과 엄마가 다 다르게 너의 모습을 이야기 하는 시를 쓴 일을 생각하니, 내가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너는 이런 글을 썼다. '김용택 선생님, 저 희진이예요. 항상 같이 지냈는데 가실생각을 하니 보고 싶어집니다.' 그레 그렇구나. 희진아 보고 싶구나. 대길아 지금도 그렇게 집안일을 열심히 돕느냐. 어느 날 너희 집에 갔을 때 작은 포크레인 위에 앉아 포크레인을 마음대로 운전하는 네 모습을 보고 놀랐었지. 재영아, 나는 너에게 많은 잘못을 했다. 내가 어른인데 왜 내가 너를 더 이해해주지 못했는지 모르겠구나. 재영아 네가 커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다면 나는 너에게 용서를 빌겠다. 나의 잘못은 어찌면 너와 나만 아는 일인지도 모른다. 너를 생각하면 나는 늘 이렇게 속으로 말한단다. 재영아 나를 용서해다오. 너는 어느 날 '거미줄'이라는 시를 썼다.

'거미줄에 / 이슬이 / 동글동글 / 바람에 흔들린다. / 가만히 / 들어보면 / 음악이 들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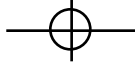
재영아, 우리학교에 곧 봄이 오겠지. 봄이 오면 학교 들레 벚꽃이 만발하고 꽃이 지면 화려한 꽃잎들이 지붕을 넘어 날아 왔지. 그러면 너희들은 그 꽃잎을 입으로 손으로 받으려고 고개를 쳐들고 운동장을 뛰어 놀았지. 운동장 잔디밭에 풀잎들이 돋고, 외! 아이들아!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아! 그러면 우리들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놀았지. 꽃잎이 내비가 되고 우리들이 꽃잎이 되어 뽕뽕 뽕뽕 하늘로 날아 올랐지. 푸른 하늘로 날아올라 산과 강과 마을과 학교 위를 날아다녔지.

대길아, 소희야, 승진아, 두환아, 강산아, 성민아, 현아야, 채환아, 민성아, 연희야, 희진아 재영아. 보고 싶구나. 너희들은 늘 내 인생의 새 길이었단다. 그 길을 걸으면 나는 나를 깨우는 그 음악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이 방향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아픔이 있을 것이니, 그 통증이 오는 고통의 원인을 알 나이에 이르면 아이들이 그 것이 삶이니, 그 것이 인생의 시작이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다듬는 법을 터득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러면 아이들아. 이른 아침 거미줄에 이는 바람과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거미줄에서도 음악이 들린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네 어린 날이 떠올라너를 안심으로 이끌 것이다.

김용택 | 시인,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공동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학도넷 2013 2월 증일 서평연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강병희 / 박영옥 / 박정훈 / 김경숙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생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2 학교 도서관 탐방

1년차 초보사서의 두근두근 도서관 일기

-마민희 (용인 왕산초등학교 사서)

책과 나...

마흔이 다 된 나이에 불현 듯 찾아온 삶에 대한 회의는 세 아이의 엄마, 아내, 며느리라고 이름 지어진 나의 정체성에 대해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뒤늦게 찾아온 늦바람과 같았다.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을 안고 내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을 반추하다보니 문득 어릴 적 학급문고에 꽂혀있던 책 몇 권을 점심시간만 되면 읽고 또 읽으면서 책에 너무 몰입하다가 결국은 만화방으로 진출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중일 그곳에 있다가 엄마에게 들켜서 혼났던 기억이 있다. 그땐 책에 너무나 빠져서 어떤 책이든 정말 맛있게 먹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 지금도 도서관 서가를 거닐다보면 책에서 솔솔 풍겨 나오는 종이냄새가 정말 좋다. 책등에 있는 제목들은 "저를 읽어보세요!" 하면서 나를 유혹한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책과 함께 살고 싶다고 과감히 선언하고 문헌정보학과에 편입해서 사서가 되었다.

아이들과의 첫만남

3월 2일... 익숙하지 않은 도서관관리프로그램도 문제였지만 컴퓨터가 느려서 부팅되는 것을 기다리다 못해 첫날부터 수기로 대출과 반납을 해주었다. 아이들에게 최대한 인상 좋은 사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입에 경련이 날 정도였다. 결국 며칠 만에 세 아이를 키워본 내공을 드러냈지만... 아이들은 정말 꽃보다 예쁘다. 실수해도 예쁘고, 잘 보이려고 속보이는 행동을 해도 귀엽고, 특히 덩치 큰 아이들이 센 척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것도 어설피서 예쁘다. 특히 이곳 왕산의 아이들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학교라서 때 묻지 않고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입 꼬리가 올라간다. 나는 착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서이다.

낮설게만 느껴지던 도서관 관련 공문들

도서관 이용안내문, 1학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도서관지원단 어머니 모집안내문, 세계책의 날 행사 계획안과 안내문, 도서관 소식지 발간, 여름?겨울방학 독서캠프 운영계획서 및 신청 안내문등... 학교 공식일정과 도서관 운영계획에 의거한 계획서나 공문들은 낮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 궁하면 길이 통한다고 했던가? 내용적인 부분은 열심히 학교도서관 사서보임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사서보임에 참석해서 다른 분들의 도움도 구하면서 도서관을 꾸려갔다. 특히 학도넷에서 주최하는 중일연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실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발표하는 형식이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서 좋았다. 이곳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독서주간행사와 겨울방학캠프를 무사히 마쳤다.

형식적인 부분은 주로 도서담당을 맡으신 선생님을 수시로 귀찮게 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린 문서가 형식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많이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시면서 따로 저장해 놓고 다음에는 그 형식에 맞게 올려달라고 했다. 나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넘쳐서 인복이 많은 행복한 사서이다.

책사랑어머니회를 만든다

학교도서관은 1인 체제라 사서가 부재 시에 대신 도서관을 운영해줄 인력, 도서관행사에 필요한 환경미화와 진행 등에는 입손이 절실하다. 기존에 하였던 분들에 대한 명단을 인계받아서 일일이 전화를 드렸는데, 하신다는 분이 한분도 없어서 절망감을 안고 보집안내문을 돌렸다. 역시나 별 반응이 없어서 결국 한만에 1명 이상이라는 의무조항을 달았다. 24학급에서 23명이 보집되었다. 첫보임에서 나는 독서와 눈송지도를 했던 경력을 풀어놓으면서, 열심히 활동하시면 자녀 독서지도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밑밥을 짝 뿌렸다.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었다. 한 어머니의 아이가 책을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갑자기 23쌍의 눈동자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하고 나를 응시했다. "어머니가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라는 처방에 즉석에서 어머니 책이야기모임인 책사랑 어머니회가 결성되었다. 지금은 당신의 자녀가 졸업해도 도서관에 나와서 활동하신다는 나의 동지가 되었다.

올해 첫보임에서는 내 이야기는 풀지 말고, 어머니들이 이 활동을 지원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야겠다. 책보임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학교처럼 좋은 강사를 보시고 학부모교육 등을 통해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지만 예산이 없었다. 그래도 지원하신 어머니 중에는 북아트나 독서지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독서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교감선생님이 독서의 중요성이나 자녀독서지도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체연수가 되었다.

일차에 꾸민 여름·겨울방학 독서캠프

일회성의 행사를 지양하고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여름 방학에는 '우리의 기록문화를 찾아서'로 정하고 각 시대별로 중요한 기록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마지막엔 샌드페이퍼에 고구려 벽화, 왕지우개에 활자 조각, 오침안정법을 이용한 고서 만들기 작업을 했다. 겨울방학에는 내 인생을 책 한권에 담다라는 거창한 주제로 My story book을 만들었다. 과거 현재 미래의



1 교감선생님과 함께한 자체연수
2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읽어주기
3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아이들 겨울방학 독서캠프
4 도서관에서 열심히 책읽는 아이들 사진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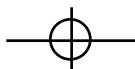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endless book을 만들어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과 그때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찰흙이나 지점토로 빚어보는 활동 등을 했다. 모든 아이들의 작품을 사진으로 담아서 출력해주면, 오래서 붙이면서 제법 호홉이 긴 문장도 솔솔 써내려가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글보다는 말문이 먼저 트이면 글은 자동으로 써지게 되는 법, 자신의 작품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

2013년도 계획은

1년간 도서관을 꾸려가면서 정말 주변학교 사서분들을 많이 귀찮게 했다. 좋은 자료가 보이면 일면식도 없어도 그 학교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싫어하는 기색도 없이 아낌없이 자료를 공유해주신 분들이 고맙고, 나 또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탬을 주고 싶다. 우리 왕산초등학교는 작년 9월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이 올해 역점사업을 독서교육으로 정하셨다. 올해 초 "교장선생님, 학교도서관의 역할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사서의 질문에 가지적인 행사보다는 먼저 독서분위기를 만드는 구심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답하셨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제동행 아침독서, 교장선생님과 북맘이 책 읽어주기, 아이들이 북맘과 함께하는 북토크 등의 프로그램을 넣었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냥 읽고, 듣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사서의 열정과 관리자의 올바른 가치관, 학부형과 교직원의 관심과협조가 한데 어우러져야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아이들을 통해 나타난다. 웃으면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로 왁자지껄한 모습에 도서관이 살아있음이 느껴진다.



학교도서관 탐험하기 :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초등 사례-중학년 이상)

-황혜주(영천 중앙초등학교 사서교사)

사서교사라면 누구나 해마다 꾸준히 하는 교육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 이용교육'입니다. 도서 대출/반납 방법이나 도서관 이용 예절 등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한국십진분류법과 청구기호를 활용한 자료 검색방법이나 자료탐구 방법에 대한 것까지 그 범위와 수준은 다양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내용은 도서관의 자료 중 '도감'을 활용하여 정보과제를 해결하는 활동 중심의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도서관 이용교육 자료나 교육청 장학자료, 독서교육 관련 도서 등이 곳곳에서 수집한 내용들이기에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주로 참고한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발간한 <학교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입니다.

도감 자료를 이용해서 정보 과제를 해결해볼까?

도감류의 자료는 보통 참고도서 코너에 비치하는데 단행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활용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부분이 도감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구요. 그래서 한국십진분류법과 청구기호에 대한 수업을 한 뒤에 다음 차시로 도감을 이용한 정보 과제 해결 수업을 해봤습니다.

수업의 첫 머리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라는 퀴즈로 시작했습니다. 답을 아는 학생들은 발표도 시켜보고요, 퀴즈의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진과 그림이 많이 실려 있고 여기에 해설을 덧붙여 놓은 참고도서입니다.

둘째, 글만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을 사진과 그림으로 전달해줍니다.

셋째, 주로 과학, 미술, 역사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예: 동물○○, 식물○○, 분화제○○ 등)

힌트를 듣고 나면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각 반에 따라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들의 관심이 '도감'에 쏠리게 하는 데는 성공적이지요.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도감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목차(차례)와 색인(찾아보기)에 대해 예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목차와 색인은 도감에서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검색도구이기에 어떻게 보면 도감을 이용한 과제 해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차와 색인은 도감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책(단행본)을 이용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알려주면 매우 좋습니다.

목차와 색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미리 준비한

'과제해결 미션 안내지'를 나눠줍니다. 미션 안내지에는 아이들이 각자 찾아와야 할 책제목과 청구기호, 미션수행키워드, 유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미션 안내지>

미션수행할 책제목	청구기호 (책등에 있음)	미션수행 키워드	유의사항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풀도감)	참 480.25 김82프	까마중	색인(찾아보기)를 이용해서 → 대부분 책 마지막 부분에 위치
(세밀화로 그린 보리 어린이 새도감)	참 498.025 김94사	곤줄박이	색인(찾아보기)를 이용해서 → 대부분 책 마지막 부분에 위치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정보 과제를 정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수업 시간을 짧고 굵게 활용하기 위해 학생 개별로 해결할 정보 과제(미션 수행 키워드)를 미리 준비해두었습니다.

이제는 미션 안내지에 적힌 책을 찾아와야 합니다. 청구기호와 일치하는 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청구기호는 책의 주소이므로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책을 찾으러 가면 혼란스러우므로 2모듬씩 혹은 3모듬씩 나눠서 찾으러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책을 못 찾고 우왕좌왕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옆에 가서 살짝 도움을 줍니다. 책을 찾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학생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일찍 책을 찾은 학생들은 잠시 기다리도록 하거나 못 찾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책을 다 찾아온 것이 확인이 되면 미션 안내지의 청구기호와 책의 청구기호가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게 합니다.

청구기호 확인이 끝나면 각자의 미션 수행 키워드를 책 속에서 찾아 조사하는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때 색인(찾아보기)을 이용해서 키워드를 검색해보도록 합니다. 미션 수행 키워드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찾으면 본격적으로 과제 해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조사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준 학교도서관 탐험지(미션 수행 활동지)에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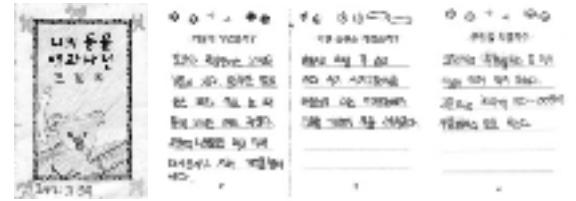
<학교도서관 탐험자도감 이용하기 미션 수행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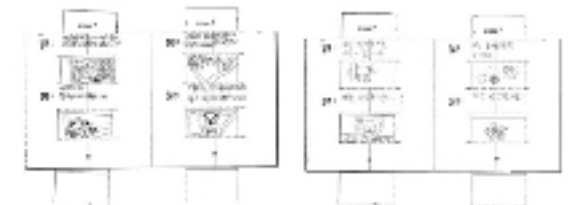
위의 미션 수행 활동지 양식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진다면 '나의 백과사전', '퀴즈책' 등 책만들기 형식으로 과제 해결 활동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책만들며 크는 학교 시리즈5: 나의 동물원 이야기』(아 이북))

<책 만들기 형식으로 정보 과제 해결한 학생 결과물-백과사전 만들기>



<책 만들기 형식으로 정보 과제 해결한 학생 결과물-퀴즈책 만들기>



조사한 내용을 퀴즈책이나 퀴즈문제로 만들면 과제 해결과정이 보다 즐거워지고 게다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이 무척 재미있어 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수업 내용에 대해 스스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수업이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조직화한 수업의 틀에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아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항상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탐험... 말 그대로 도서관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이곳에는 어떤 책이 있고 저곳에는 어떤 책이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는 것.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책을 뒤적이며 탐구하는 것. 이러한 도서관 이용교육의 이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실천해보아야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탐방은..

다양한 학교도서관을 찾아가세요.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느껴보세요. 고루 나누고 두루 누리는 학교도서관에서 함께 행복해봐요.

4_추천도서

2013 학도넷 2월 종일 '서평연수'에 참여하셨던 선생님

부지런하고 마음 건강한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추천책들입니다



썩썩해요

전미화 글·그림 / 사계절 / 2010

죽음이라는 어두운 주제의 내용을 밝은색의 표지에, 제목을 말풍선에 넣어둔 것이 인상적으로 부담없이 이 책을 읽고 싶게 한다. 갑자기 아빠의 죽음을 겪게 된 엄마와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며 슬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색으로 잘 표현해 준 책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다. (인천 부광고등학교 사서유영미)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윌터 J. 웅 글 / 문예출판사 / 2009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꼭 읽어야 할 메타북이다. 이런 종류의 메타북은 책의 내용이 담기는 그릇으로서 언어의 정체를 밝힌다. 책은 문자문화의 핵심이지만 구술문화와 비교됨으로써 그 정체기가 더 잘 드러난다. 그동안 너무나 문자문화에 익숙하여, 구술문화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을 일깨워준다. 균형각을 가지게 해주며 인간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해해온 바를 고쳐 생각하게 해준다. (서울 금곡초등학교 사서교사 신형란)



6학년 1반 구덕천

허은순 글 / 현암사 / 2008

최근 '따돌림'에 대해 다루는 책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괴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실에는 막대한 골목에 내몰린 나를 구해주는 친구도 없고, 나를 따돌리던 녀석이 개과천선하여 친해지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상당히 현실적이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가해자, 방관자의 시선에서 문제를 아플 정도로 솔직하게 말한다. 따돌림이 나쁘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지만 읽는 이를 등장인물들 중의 하나로 끌어들이고 나서도 생각에 잠기게 만든다. 쉬운 글로 씌어졌고 200쪽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글이기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같이 읽고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저학년용 책임에도 소름이 돋을 만큼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 저 등장인물 중 하나였

던 나를 떠올리게 하는 작가의 솔직함 때문일 것이다. (안산 부곡중학교 사서교사 박보경)



창릉천에서 물총새를 만났어요

이우만 글·그림 / 마루별 / 2010

물총새를 만나러 창릉천으로 같이 가실래요? 물총새를 오래오래 볼 수 있으려면 피라미,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사라지지 않게 창릉천의 오염을 막아야 하겠지요. 물총새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새들과 인간의 공존, 생태환경의 중요성 등을 조용조용 들려줍니다. 4세~9세 대상이지만 환경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그림동화입니다. (서울 가락고등학교 담당교사 신향숙)



내 머리에 햇살 냄새

유은실 글 / 비룡소 / 2012

사소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아이들의 일상이 담긴 동화집이다. 작가는 아이들의 사소한 일상이 담긴 네 편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소중한 동심을 그려낸다. 어른들의 시선에 아이들의 일상과 감정은 사소함으로 남기 일쑤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순수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그려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언제나 아이들이 원하는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서울 난곡초등학교 사서 양희선)



나를 위한 행복한 습관 만들기

강상규 글 / 원앤원북스 / 2012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행복한 삶을 위한 습관 바꾸기의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1단계는 행복한 습관 만들기의 준비사항, 2단계는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방법제안, 3단계는 한계와 부딪쳐도 포기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작은 습관을 고치고 행복한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은 100일이면 가능하다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습관을 고치고 싶은 친구들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독서활동 Tip

나의 좋은 습관과 고치고 싶은 습관을 이야기해 봅시다. 고치고 싶은 습관을 위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졌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을 나눠봅시다. (성남 창곡여자중학교 사서 김지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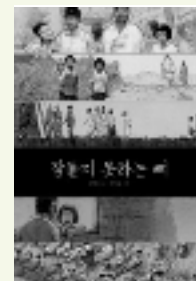


태일이 1~5

박태욱 글 / 최호철 그림

돌베개 / 2009

전태일이 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는지, 왜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리며, 폐병까지 걸리는 어린 여공들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절절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여리고 순수했던 한 소년과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1970년대 노동 현실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선생님이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 좋겠다. (변영이 학도넷 간사)



잠들지 못하는 뼈

선나나 글 / 허태준 그림

미세기 / 2011

이념이 사람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 보도연맹사건. 해방과 한국전쟁이 몰고 온 이데올로기의 대혼란으로 평가르기가 시작되고 그 평가르기에 무고한 양민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살아남은 가족들도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했다. 최근 왜곡과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영원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책 <잠들지 못하는 뼈>는 한국전쟁 때 12살이었던 남주, 이제 칠순을 넘긴 강내덕(남주)의 슬픈 가족사와 민간인들이 보도연맹사건으로 희생된 곳에서 유해발굴을 돕는 태오를 통해 사죄와 화해를 시도하는 이야기다. 태오의 할아버지는 당시 처형을 집행했던 헌병, 평생 가슴 무거웠던 진실을 용기를 내어 기자회견장에서 양심선언을 한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손자 태오는 뼈를 발굴하는 자리를 계속 떠나지 않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정성으로 위로하며 진혼곡처럼 기타공연으로나마 그 유족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내려한다. 가해자들도 무거운 짐을 함께 내려놓을 수 있길 바라면서... 사실적인 그림들도 좋다. (김경숙 학도넷 사무처장)

내가 권하는 책

※이번 추천도서와 내가 권하는 책은 학도넷 2월 중일 '서평연수'에 오신 선생님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커와 나
김중미 글
창비 / 268쪽 / 2013년 1월

김중미의 단편집 "조커와 나"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계급과 폭력에 대한 5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단편집에 나오는 학교는 힘세고 공부 잘하고 인기 있는 중심파와 약하고 공부 못하고 왕따 당하는 썬파파,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중간파로 아이들의 계급이 정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단편 "꿈을 지키는 카메라"에서는 선생님마저 경험이 적고 무능하면 하반 선생님, 인기 있고 실력 있으면 명품반 선생님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서민지역과 명품도시, 대형마트와 임대상인,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대책위원회로 나누어지는 세태를 보여준다. 책 속 이야기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사회와 학교폭력이 그저 장난이고 재미며 게임이라고 말하는 힘있는 가해자에게 한번쯤은 내 탓이 아닌지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물리적 정신적 폭력 앞에 비겁하지만 외면하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거짓 앞에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진짜 용기를 내보라고 한다. "조커와 나"의 근이영양증으로 고통 받던 정우에게 필요한 것은 도우미였던 선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힘이 될 친구이고, "나에게도 날개가 있다"의 가은이에게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고 잡을 수 있는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생생한 세태 풍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입학사정관제로 가기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학생들이 장애아의 도우미에 자원하는 현실. 용산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뉴타운 개발을 둘러싼 시장사람들의 갈등, 학교폭력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고발하는 세태, 코스프레 동아리, 보컬로이드에 열광하는 아이들, 1318 수다가페, 왕따친구에 대한 집단 안타카페, 그리고 그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 방안, 교과 교실제 시범학교의 문제점 등 현재 학교 아이들의 문제를 되짚어보게 하는 생생한 현장 소설이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 각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준다 하지만 작가 김중미는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공교육에 대해, 학교에 대해 여전히 희망을 꿈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사서 김하나)



날아라 로켓파크
이시다 이라 글 / 김윤수 옮김
양철북 / 376쪽 / 2013년 1월

일본 민담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새끼손가락에 붉은 실을 매달고 있다고 한다. 그 실의 끝은 자신의 운명의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생활하면서 만나는 각각의 사람들과 연결된 실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 다만 어떤 실은 금방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단단하게 매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날아라 로켓파크」에 등장하는 요지와 간타는 서로가 단단한 실로 묶여있다. 다섯 살에 처음 만난 그들은 작고 큰 사건들을 마주하며 성장해간다. 발달장애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 간타를 요지가 도와주고, 그런 요지를 간타도 신뢰하며 지켜준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돌봐주던 간타 어머니의 죽음과 우연한 기회에 전자 상가를 돌아다니다가 만난 폭력배들로 인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불량배에 맞서 정당방위로 대응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정의에는 돈이 든다"는 불편한 진실뿐이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의 삶을 내던질 만큼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된 것이다. 요지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결국 휴대폰 게임 회사인 '로켓파크'를 세우고 일확천금을 얻는 행운을 얻지만, 기업 합병의 과정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까지 겪게 된다. 작가는 친구간의 끈끈한 우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성장소설에서 다루지 않았던 거친 사회의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인 우정의 힘에 대해 따뜻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추천한다. 청소년들은 학창시절을 보내며 한 번쯤 고민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을 겪게 될 것이다. 요지와 간타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사서교사 김윤미)



나도 예민할 거야
유은실 글 / 김유대 그림
사계절 / 63쪽 / 2013년 2월

오늘 학교며 교회를 늘 붙어 다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 옆에는 내 키만큼 쑥 커 버린 아이들이 있었다. 어느새 우리가 만났을 때처럼 열셋이 되었다는 쌍둥이 남매였다. 쌍둥이임에도 오빠보다 동생이 머리 하나만큼 차이가 나도록 컸다. 친구 말이 쌍둥이 오빠인 큰 아이는 무척 예민하다고 했다. 먹는 양도 적고, 잘 먹지 않는다고. 쌍둥이 동생인 둘째 아이는 무척 순하다고 했다. 신기하게도 『나도 예민할 거야』에 나오는 정이랑 오빠처럼 꼭 같이 말이다. 『나도 예민할 거야』는 딱 2년 전에 나왔던 『나도 편식할 거야』에 이은 유은실 작가의 두 번째 저학년 동화다. 지난번 책과 같이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고, 여전히 뭐든지 잘 먹고, 잘 자는 정이와 너무나 예민해서 엄마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오빠가 나온다. 이번에는 '보통 회사'를 그만 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아빠 덕분에 시골까지 이야기 공간이 넓어졌다. 책 표지에 7~8세가 읽는 책이라고 박힌 이 책은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문장이 짧다. 두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읽고 있으면 어느새 아이 같은 마음이 된다. 8살 정이가 된 것이다. 그러다 '예민하니까 만지는 거다. 순하면 내버려 둔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 다시 어른이면서 교사인 내가 되어 버렸다. 내 눈길과 마음이 필요해서 특 말을 내뱉었던 지난해 우리 반 아이가 생각나서였다. 그리고 정작 너무 순해서 내 눈길과 마음을 나눠 주지 못한 다른 아이들도 생각났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농부다.' 라고 아이들 꿈을 소중히 가르치는 정이 선생님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누구나 명 때리면서 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에게도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며 교사가 되고 싶다. 어느새 마지막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맛있는 게 많아서 시골이 좋다는 정이, 아빠와 꼭 닮아 길을 잃어도 시골에선 걱정이 없다는 정이는 겉보습만 아니라 속마음도 어릴 적 아빠와 꼭 닮았다. 작가는 어쩔 이렇게 짧은 책에서도 이렇게 여러 번 오래도록 웃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음 책도 더 기다려진다. 다음에는 정이가 또 무엇을 하고 싶을까? '모두 각자의 빛깔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라며 이런저런 아이들 마음을 읽어 주고 싶어 이야기를 쓴다는 작가의 말을 다시 한 번 새 학기를 시작하는 내 마음에도 새겨본다. (인천 도림초등학교 도서관담당교사이윤숙)



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도서관 운동의 주체인 교사, 사서, 학부모, 학생, 출판사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12월의 겨울밤, 선물 같았던 하루!

강병희 (서울 양천초등학교 학부모)

지난 겨울, 마흔넷의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하루가 있었다.

학교도서관을 알게 된 지 2년째~ 다행히 아홉번째 후원의 밤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이 기도라 하시며 침선을 이야기하시는 김봉화 선생님의 수강생으로 복을 짓는 바느질, 버전 브로치 만들기의 도우미역할로 참여하게 되었다. 성산동 학교넷 사무실은 주택을 내부만 약간 개조하여 만들어서인지 들어서면서 친근함이 느껴졌다. 일찍부터 주방에선 십시일반 준비해주신 두부김치, 부침개와 더덕순대등 소박하지만 알찬 음식들이 준비되었고, 한 쪽 전시실엔 돗자리를 깔고 시골 잔칫집 분위기였다.

요즘엔 쿼트바느질을 많이들 해서인지 내 솜씨보다 훨씬 솜씨 좋은 버전브로치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셨고, 시작부터 작은 바늘에 실 끼우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 간혹 군대 이후 처음 바느질해본다는 남자 분들도 계셨다.

유유상종이라 할까? 처음 만난 분들이지만 용기종기 보여 앉아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등 바느질 수다와 함께 한 땀 한 땀을 정성 들여 만들어 가는 모습들이 예뻐 보였다.

모두들 본인들이 만든 빨방버선, 초록버선, 광목버선에 버선코 슬까지 달아가며 브로치를 완성했을 때의 만족도는 내가 처음 바느질을 접하고 뿌듯해했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저녁7시 신명환판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접고, 가운

데 마룻바닥에, 계단 등에 공동이들을 좁게 붙이고 앉았다. 우선 그날 오신 손님들을 소개 받는 시간이 이어지고, 조금 후 전등불이 꺼지고 몇 개의 촛불이 켜졌다. 산과 나무를 좋아하는 나에게 그날 밤 나무 이효립 선생님의 신명환판은 난생 처음 경험으로 신송을 만나는 느낌이었다. 땡 뚫린 가슴을 잡고, 12월의 겨울밤인데도 왠지 보름 상쾌함의 추억을 갖게 되었다.

결혼 전 직장 다니면서 연예인과 함께하는 호텔 연말 파티도 있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아들과 신랑에게 미안함을 접어두고 엄마, 마누라의 신분도 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던 학교넷 후원의 밤! 앞으로도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기대가 된다.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면 2013년 올 한 해 동안 책도 많이 읽고 여러모로 나누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특히 한 해를 마감하는 아쉬움을 흥겨운 큰 잔치로 준비해 주신 김경숙, 변영이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한다. "에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2013년 열 번째 후원의 밤도 기대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사서

도서관의 소소한 일상

박영옥 (서울연지초 사서)

2월말에서 3월초가 되면 나는 재활용쓰레기장을 찾는다. 이곳에 가면 쓸 만 것들을 주울 수가 있다. 이번 수확은 책꽂이 2개, 파일 꽂이 2개, 파일 2개, 화분받침 2개, 화분 속 흙이다.

이런 것들은 낱고 찢어진 것도 있어 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았다.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책꽂이는 그림책 꽂는데 아주 좋다.

그림책은 밑면이 서가의 깊이보다 깊어 아이들이 뽑을 때 떨어뜨리기 쉽다. 그리고 책을 옆으로 젖히고 뽑기가 무거워 힘들어한다. 이때 낡은 책꽂이를 그림책 서가에 안에 넣고 그림책을 꽂으면 그림책이 넘어지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파일 꽂이도 역시 그림책 중간 중간에 놓고 책을 꽂으면 그림책이 넘어지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꽂고 뽑는데 힘도 들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 안정맞춤이다. 그리고 화분의 흙은 봄에 분갈이 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도서관에는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이 곳곳에 보인다. 도서관 곳곳에 색연필과 연필을 통(과자통을 재활용)에 담아 두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몽당연필을 색연필 깎지나 사인펜 깎지에 끼워 놓는다. 아이들은 연필 하나 정도는 잃어버려도 찾지를 않는다. 아이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필을 깎지에 끼워 통에 넣어 둔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신기했는지 연필을 킁킁대며 빼보기도 하고, 놀려서 더 넣어보기도 하더니 이제는 '도서관 연필은 몽당연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어느 날 명예사서 한 분이

"선생님,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 남편이 요즘 아이들이 물건 귀한 줄을 모른다면서 불펜에 몽당연필을 끼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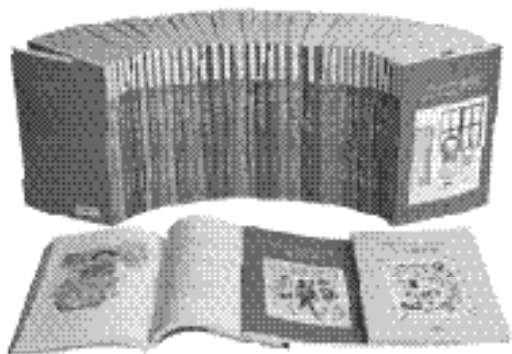
"너희들 이런 것 못 봤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두 딸이 "우리 도서관에는 다 이런 연필 인데요."해서 남편이 머쓱했다고 한다.

난 색종이에 대한 환상이 있다. 옛날 색종이가 귀할 때 학교에서 준비물로 가져오라고 하면색이 있는 잡지를 찢어갔던 생각이 난다. 그 때 문방구에서 팔던 색종이가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른다. 지금 생각하면 참 조악한 색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메메이드지나 색상지, 밍크지 같이 예

어린이책의 결정판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



동화집 1권, 창비아동문고 1권 | 1권 1권 | 1권 1권

- ▶ 권정생부터 황선미까지 한국아동문학 대표작가 75명, 대표작품 106편 명파
- ▶ 아동문학집문가들이 엄선한 동화집 10권, 한국동화 메스브로집합전 25권
- ▶ 점 저판 교과서 수록, 각계의 후원도서·권장도서로 선정

지난 70년간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은 한국아동문학의 대표작을 모았다. 세대가 바뀌어도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대표작을 모은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은, 지난 70년간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은, 한국아동문학의 대표작을 모았다. 세대가 바뀌어도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대표작을 모은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은, 한국아동문학의 대표작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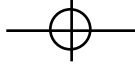
"100개 초등학교 학급, 도서관에 문집을 만들어 드립니다"

우리도 학급문집 만들어요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35권과 함께한 북클럽활동 필수 프로그램! 학급도서관 문집 만들기! 100개 학급도서관 문집을 신청해 여학생 수만큼 (10명 50개) 무료로 문집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활동 기간: 2013년 3월부터 5월 10일까지
- 일회: 2013년 10월 11일
- 자세한 내용은 창비아동문고 홈페이지 www.changbi.com를 참고하세요.





쁜 색깔이 있는 종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한다. 학교 행사가 있어 색지를 많이 사용할 때 도와주시는 명예 사서 어머님들이 남은 색지를 버리면 나는 쓰레기통에서 주워 놓는다. 그걸 보신 분이 다른 명예사서에게 알려 주신다. '사서선생님은 조그만 종이도 재활용하시니까 버리지 마세요.'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지 하는 목적을 두고 한 행동이 아니었는데, 나의 오래된 습관에 동조해주는 아이들에게 감사하다. 이렇다 자연스럽게 '물건을 아끼는 습관이 생기게 된다면 금상첨화이지.' 하면서 오늘도 아이들이 사용해 문득해 진 연필을 꺾는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
**민중의 삶에 주목하는
사회과학 출판**을 위해

박정훈 (철수와영희 주간)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날이었지만, 사회과학 출판을 하는 철수와영희 출판사 입장에서도 특히 중요한 날이었다. 사회과학 출판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사회에 화두를 던지는 기획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정치적 변화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고 2013년 이후 5년간 사회과학 출판의 굵은 방향을 잡으려고 했다.

철수와영희는 지난 5년간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진보세력의 확장과 발전을 위한 책을 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그래서 당연한 정치 현실에만 주목해 왔다.

그러나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사회과학출판에 대한 생각과 문제설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지난 대선은 안철수, 문재인과 박근혜로 표현된 진보와 보수의 결전장이 아니라 진보의 목소리가 사라진 가운데 민중의 삶이 배제된, 착한 보수와 나쁜 보수의 대립이었음을 느끼게 된 것이다.

복잡한 사회 현실을 단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만 바라보며 정치 대립 상황에만 매몰되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출판방향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경솔하고 안일한 생각이었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와 함께 민중의 삶의 개선이 진정한 진보라면 진보를 위한 출판 기획은 민중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OECD국가 중 산재사고 1위, 자살율 1위로 상징되고 용산 참사,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대한 정리해고와 죽음 등으로 표현되는 천박한 한국자본주의에서 사회과학 출판의 역할은 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거시적인 자만심이 아니라, 민중의 입장에 서서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당분간 많은 책을 펴내지 못하더라도 올해는 좀 넓은 안목으로 민중의 삶에 주목하며, 더디가더라도 제대로 된 출판 방향을 세우고 기획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민중의 삶과 현실을 담은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펴내고 싶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단체
**'자유교양대회'와
'KBS어린이 독서왕대회'**

김경숙 (학도넷 사무처장)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초·중등학교를 다닌 분들 중에는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읽기대

회를 기억할 것이다.

초록색 표지, 파란색 표지, 분홍빛 표지 책들이 바구니에 한가득 담겨 교실로 오면 한권씩 받아 읽었다.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라기보다 제본 형태의 300쪽을 넘나드는 두툽한 책이었다. 아이들이 그 책을 일정기간 읽으면 다시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준 문제들로 시험을 봤다. 책을 나누어주는 했지만 축적된 삶의 경험과 성찰의 능력이 부족하면 읽기 어려운 묵직한 고전이라는 책들을 어떤 지도나 도움도 없이 대회 준비하라고 던져주고 결국 시험 잘 본 아이를 가려내는 절차였다. 그 중 반에서 한 두명 시험을 잘 본 '선수'들은 방과 후에 한 교실에 모여 책보고 시험보고, 책보고 시험보고 강요된 책읽기를 반복해야 했다. 대통령기를 두고 해마다 연 대통령기쟁탈 전국자유교양대회는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별 대항이기도해서 몇몇 학생들만 따로 뽑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스파르타식 훈련을 시키는 비교육적인 분위기가 만연되고 입상 경쟁이 과열되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엄청났다고 한다. 결국 소수의 재능있는 학생들의 전유물이 돼버린 자유교양대회는 총 7회에 걸친 대회를 끝으로 사라졌다. 문제점을 인식한 당시 문교부는 이 행사를 폐지하고, 그 뒤에는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

똑같은 일에도 기억과 평가는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유교양대회'가 아니라 '강제교양대회'의 악몽으로 회고하기도 한다. 책 내용에 대한 단순하고 획일적인 암기가 질적으로 풍부한 독서로 이어질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유교양대회의 망령이 2013년 'KBS 어린이 독서왕'대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 아이들 주변을 넘실거린다. 즐거워야 할 책읽기를 획일적인 시험으로 줄 세우기를 하겠다. 많은 어린이들을 구경꾼으로 만들면서 독서문화와 출판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 뻔한 이런 대회를 무슨 권리로 누가, 누구를 위해 벌인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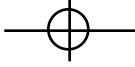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도란도란 책모임

독서문화가 '백화점 교사의 열매' 읽고 함께 쓰는 책모임 이야기
오래되면 끝이 미처든 안 끝이 될. 그것은 8만 동안 무의명에서 우애 두 미야와 그 친구들을 데리고 한 가정복지모임을 통해 발전한 '도란도란 책모임'이었다.
책모임은 지식만을 바꾸는 일은 아니니 담담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언젠가 이러한 책모임을 펴로나 공공도서관, 또 가정과 마을 등에서 수집, 혹은 수백 개씩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우애에게도 희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비밀번호 | 02-322-8877 | 학교도서관계보

백화점의 가정독서모임 이야기
**책으로
크는 아이들**

매우 중요하다 두 시간씩.
엄마와 부모,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책 읽기.
비밀번호 | 02-322-8877 | 18,000원
수령교과





8 학도넷 소식

학도넷 소식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2년 12월 15일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28호)
- 2012년 12월 15일 학도넷 후원의 밤
- 2013년 1월 16일~18일 학도넷 겨울사서연수
- 2013년 2월 16일~17일 학도넷 운영진 연수
- 2013년 2월 24일 2월 종일연수 '서평쓰기의 실제'

신입회원 (2012년 12월~2013년 2월)

정희원, 위정순, 정문자, 최선옥, 김기태, 주미원, 강희순

준회원: 이취립, 김근혜

웹회원: 김은정, 안정현, 오일석, 김영선, 장나리, 최여리, 송찬화, 강현정, 이경옥, 머스트비, 유반디, 이하진, 김혜숙, 방진

회비 및 후원내역 (2012년 12월~2013년 2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신은미, 주상태, 신형란, 김정윤, 김은영, 선보배, 백화현, 이수연, 윤소영, 허지은, 임행녀, 김기숙, 조선희, 변영이, 백연주, 백경숙, 송숙영, 정수연, 강영미, 유서연, 송혜영, 신정화, 정해선, 윤남미, 허지연, 송경영, 임민욱, 강복숙, 박미영, 이현애, 김영신, 정영화, 상주영, 김대경, 유정원, 박준섭, 김영신, 차진미, 김하나, 김경숙(보령)
- 매월 1만원: 정수현, 정지영, 김진희, 김중성, 조약태, 조은영, 김경숙, 박영옥, 김순홍, 이경자, 문예원글로피아, 이규향, 허경림, 오희애, 이문숙, 정진수, 김옥위, 김신희, 권찬미, 박정해, 김지영, 박지연, 류주형, 김숙경, 정영희, 김승주, 신정임, 김하나, 조길랑
- 매월 2만원: 김광재
- 매월 3만원: 윤성욱(해피북 책모임)

연회비: 이덕주(73,200원)

준회원 회비

- 매월: 장한솔(2천), 장버리(3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손은상(2천), 김민형(2천), 송간형(1천), 김승오(2천), 김승현(2천), 강형인(3천), 이제희(2천)

정기후원: 문학동네(매월 20만)

2012 후원의 밤 후원내역

- 김영진(5만), 윤소영(4만), 이경옥(2만), 백화현(12만), 정진수(10만), 김미경(10만), 신형란(20만), 박상률(10만), 권유청, 이영숙(4만), 창작과 비평사(100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100만), 희망예술가치 최미환(10만), 사계절출판사(50만), 푸른숲출판사(50만),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10만), 나루코 윤재희(2만), 선보배(2만), 박상애(2만), 이지은(2만), 강은준(2만), 구자숙(2만), 이금주(2만), 신영숙(2만), 김지영(2만), 이제희(2만), 김보영(2만), 조의래(10만), 김은웅(2만), 목표교육청(2만), 최경희(2만), 이경자(4만), 서행민(2만), 박샘(2만), 박영옥(10만), 윤진희(2만), 이은혜(2만), 이강련(2만), 변영이(10만), 전혜진(4만), 엄정애(10만), 이미경(2만), 박은숙(12만), 장정윤, 안영숙(20만), 이덕주(10만), 김은영(4만), 김하나(2만), 영광식(2만), 김리경(5만), 신동욱(2만), 어린이문화연대 이주영(5만), 이근자(2만), 청소년출판협의회 김준연(10만), 현실문화/소금창고 김수기(10만), 우리교육(10만), 노리출판사(20만), 길꽃어린이도서관(5만), 학교도서관저널(10만), 최영숙(2만), 신정화(2만), 김옥위(2만), 양철복(10만), 김희숙(2만), 양갈현(2만),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이미숙(10만), 백경숙(2만), 윤화윤(2만), 이현숙(3만), 조은희(2만), 박이정화(2만), 김정숙(2만), 조은영(2만), 국악놀이연구소 노병갑(2만), 어린이책시민연대 김영미(2만), 조월례(10만),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20만), 김혜원(4만), 신정임/신정화컬트가방 구입(5만), 버선후원(1만), 무명후원(1만)

후원의 밤 물품후원

동화작가김정희(막걸리 한상자), 송경영(사과 1상자), 김진희(주먹사과 100개), 허경림(굴1상자), 신정화(컬트가방), 길꽃도서관 김동운관장님(수정과), 비룡소출판사-원더랜드 대모험(300권),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서 살게 되었을까?(300권), 나루코(책5권) 사서연수 책 후원: 비룡소 출판사-남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고?(40권), 인류학자가 자동차를 만든다고?(40권),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다고?(40권)/ 양철복 출판사-가르친다는 것(30권), 우리반 일용이(5권)/ 사계절 출판사(40권)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만화책365(학교도서관저널)/ 세상을 깨우는 영화읽기[문학동네]/ 착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글담어린이]/ 할머니의 강, 바다를 건너간 낙타, 해소녀, 불새가 된 깃털[나한기획]/ 우리 마을 경찰은 맨날 삼삼해(웃는돌고래)/ 내 이름은 용비, 감사사회 안전장치인가, 통제두인가?(이후)/ 어느 날 아침[글로연]/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철학의 13가지 질문(다름)/ 사자의 꿈(사공사)/ 고추의 한 살리로 들여다본 고추밭 생태계, 고추(등그나무)/ 선생님 돌아오실 건가요?(다섯수레)/ 지전거, 넌 아직 몰라도 돼(북멘토)/ 불야. 우리가 희망을 만든다, 카이는 진짜 이누이트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동물들이. 힘을 내!(도야세)

소식지 보내주신 곳

개똥이네 놀이터(보리)/ 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창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고래가 숨쉬는도서관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2 학도넷 후원의 밤 진행했습니다

학도넷 후원의 밤이 학교도서관을 사랑하는 분들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천을 고르고 조각을 이으며, 한땀 한땀 정성으로 꿰매어 버선도 만들고 부엉이도 만들어 훈훈한 마음 담아 가셨지요? 인형염마의 인형놀이도 화사했고 나무선생의 신명난 판으로 긴 울림이 있는 할링도 맛 보았구요. 회원들이 한 가지씩 준비해준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오시지는 못했어도 멀리서 응원 보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선생님들의 건강만 기운 듬뿍 받아 일하겠습니다.

2012 학도넷 겨울 사서연수 했습니다

- 연수명: 인형염마와 나무의 신명 불어오기 한편, 두편 세판
- 강사: 나무 이취립선생님 (나무움직임연구소 소장) 인형염마 엄정애선생님 (극단 인형염마 대표)
- 공동주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주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 때: 2013년 1월 16일(수)~18(금) (3일간, 10:00~17:00)
- 곳: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세미나실

학도넷 2월 종일연수 했습니다

- 연수명: 서평쓰기의 실제
- 강사: 조월례 선생님 (학도넷 공동대표) 김혜원 선생님 (학교도서관문화살림 책살림장)
- 주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 때: 2013년 2월 24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곳: 성산동 학도넷 사무실 책놀이터

<종일연수> 2013 학도넷 4월 종일연수

화사한 봄을 떠올리게 하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꽃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 규장각 탐방과 함께 종일연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을 살펴보고,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연수명: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 강사: 김창섭 선생님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전, 서울대 법학도서관 사서(현))
- 연수 내용

10:00~12:30	기록문화에 대한 강의
12:40~13:20	점심
13:20~14:20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람
13:20~14:20	캠퍼스 투어
15:30~17:00	규장각 전시실 관람

- 주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 때: 2013년 4월 20일(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곳: 서울대 규장각, 강당

<세미나> 우리 동화로 만드는 우리교실 학급문고

- 주제: '우리 동화 로 만드는 우리교실 학급문고'
- 강사: 조월례 선생님(어린이책 전문가) 이영근 선생님(군포 양정초등학교 교사) 주한경 선생님(남양주 덕소초등학교 교사)
- 프로그램: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홈페이지 참조
- 공동 주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www.hakdo.net), 학교도서관저널(www.slj.co.kr)
- 후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창작과 비평사
- 때: 2013년 4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 곳: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 대상: 교실과 도서관을 풍부하게 연결하고 싶은 초중등교사, 사서(교사), 학부모, 도서관 자원활동가 등 총 80명
- 참가비: 1만원(자료집, 신간 <창비아동문고 대표동화> 중 희망 도서 1종 + 독후활동집, 점심 간식비 포함)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 학도넷)
- 참가신청: 학도넷 메일(hakdone@hanmail.net) 로 신청양식을 보내주세요. 80명 선착순 신청/ 선착순 입금자 마감

함께 읽는 즐거움 학도넷 '책모임 이야기' 공모합니다
전국의 학교와 지역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책모임 사례를 공모합니다.

- 학교에서 하는 책모임 (교사, 학생, 학부모책모임)
- 책모임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 동료와 소통하는 아름다운 사례
-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모임을 꾸준히 이끌고 있는 사례
- 이제 막 뜻을 모아 모임을 시작하는 곳도 모두 참여하세요.

- 주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대상: 학생, 학부모, 사서(교사), 교사(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출판계, 공공도서관, 마을책모임, 가정독서모임 등 관심있는 모든 분
- 참여방법: 책모임 신청양식(첨부파일 참고)과 모임 소개글(A4 용지 2매 이상)을 보내주세요.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 온라인 접수: 2013년 5월 11일까지 (hakdone@hanmail.net)
- 우편 접수: 2013년 5월 11일 우편소인인우
- 주소: 서울 마포구 상산동 256-13 2층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표: 2013년 5월 20일 학도넷 홈페이지
- 시상: 1. 으뜸상: 1개팀 (상장액자 및 도서 50권) 2. 버금상: 6개팀 (상장액자 및 도서 30권씩) 3. 나눔상: 10개팀 (상장액자 및 도서 10권씩)
- 시상식: 당선된 책모임 시상식은 학도넷 창립 9주년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2013년 5월 25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서 합니다.
- 문의: 02-720-7259 (학도넷 사무처)

<학도넷이 아홉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학도넷 창립9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합니다

- 심포지움 주제: 책모임 운동 왜? 어떻게 해야하는가?
- 때: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 곳: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지립과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425301-01-301236 김경숙(학도넷)

